전원생활

만덕산 자락 녹차 향기 그윽한 '60살 된 고택'

■ 강진 도암면 윤관석·박양희씨 부부 한옥집

강진읍에서 승용차로 10여분 거리에 있는 다산초당 입구에 가면 야생 녹차향기가 그윽한 고풍스런 한옥 한 채를 만날 수 있다. 이 집의 당호(堂號)는 '다향소축(茶香小築)'. '차향기가 나는 아담한 집' 이란 뜻과 '다산 선생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아담한 집' 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골목길을 휘감고 있는 돌담을 따라 마당으로 들어서면 황금빛을 머금은 잔디가 정갈하게 깔려 있고, 한 켠엔 40년생 오엽송(잣나무)이 자리잡고 있다. 이 한옥의 가장 큰 매력중 하나는 만덕산이 둘러싸고 있는 주변 풍경이다.

특히 집 뒷산을 통해 백련사로 연결되는 800m 짜리 오솔길은 백미다. 도보로 왕복 1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데, 이 오솔길은 다산 정약용 선생과 초의선사가 속세를 떠나 학문적인 교류를 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주변 여건이 완벽한 이 한옥의 주인은 윤관석(50)·박양희(여·45)씨 부부다.

현직 부부 교사인 이들은 지난 88년 도시의 삶을 버리고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 전원생활만 20년째다. 광주에서 생활하던 이들 부부는 남편 윤씨의 희망에 따라 강진에서의 전원생활을 결심했다고 한다.

현재 윤씨는 강진 성요셉여고에서, 아내 박씨는 해남을 거쳐 완도에서 20년째 교직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이 사는 한옥은 올해로 60살이 된 고택이다.

윤씨는 지난 88년 빈 집으로 방치돼 있던 이 한옥을 1천만원을 들여 리모델링 했다. 집 주변 3천평의 땅엔 대나무와 소나무 등을 심었고, 인근 야산 5천평을 구입해 무공해 야생 녹차를 경작 중이다.

'ㅁ'자 구조인 이 한옥은 방 4개와 욕실 2개, 주방을 갖춘 본채를 중심으로, 아래채 2곳과 차를 마실 수 있는 10평 규모의 다실로 구성돼 있다.

외관은 옛 모습 그대로지만, 내부 시설은 현대식으로 꾸며져 있다.

지난 2006년엔 문화관광부의 고택 사업 지원비 6천만원과 자부담 3천만원을 들여 아래채 2곳을 전통 황토방을 갖춘 한옥으로 새롭게 꾸몄다.

지난 88년 빈집 사들여 리모델링
야산 5천평 구입 야생녹차 재배
아래채 황토방 만들어 민박 활용

이후 아래채 2곳과 다실은 민박을 원하는 이들에게 내주고 있는데, 매년 4월이면 여름 성수기 예약이 완료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민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만 4개(수용인원 16명)지만, 하루에 1그룹만 받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한옥의 정취를 느끼고 싶은 이들이 타인에게 방해받는 게 싫어서라고 한다.

민박을 하게 된 계기도 남다르다.

한옥 애찬론자인 윤씨는 "어느날 문득 이처럼 아늑하고 아름다운 한옥을 내 가족만 소유한다는 게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민박을 시작하고 보니, 신기하게도 나와 같은 취미,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찾아오더라"고 말했다.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귤동마을에서 20년째 전원생활 중인 윤관석·박양희씨 부부가 다실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전원생활에 입문한 지 20년째를 맞이한 이들 부부도 처음엔 적응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외지인을 경계하는 마을 사람들과의 어색한 관계가 가장 힘들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녹차 경작과 텃밭을 이용한 벼 농사다. 마을 사람들의 삶 속에 함께 뛰어들어보자는 생각에서였다. 결과는 대 성공.

전원생활에선 대 선배인 윤씨는 전원생활의 성공 비결로 "시골에서 전원생활을 결심했다면 일단 그 지역 사람들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올해로 전원생활 20년째를 맞는 윤관석·박양희 부부. 윤씨 부부는 60년 된 고택을 사들여 다실과 전통 황토방을 갖춘 한옥으로 새롭게 꾸몄다.

다산초당 전경.

정약용 선생 유배지 다산 초당으로 유명

■ 강진 도암면 귤동마을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에 위치한 귤동마을은 유자나무가 많다고 해서 붙여진 마을 이름이다.

이 마을의 대표 명소는 다산초당(茶山草堂)이다. 다산초당은 5칸 도리단층 기와집이며 측면 2칸은 거실이고, 앞이 마루로 된 소박한 남향집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 유배 18년 중 10여년간 생활한 곳이다.

다산은 이 곳에서 목민심서와 경세유표, 흠흠신서 등 500여 권에 달하는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했다. 또 수많은 제자를 가르쳤고, 초의선사와 혜장선사 등과도 교류했다.

다산초당에는 이 밖에도 다산이 '丁石'이란 글자를 직접 새긴 '정석바위', 차를 끓이던 약수인 '약천', 차를 끓였던 반석인 '다조', 연못 가운데 조그만 산처럼 쌓아놓은 '연지석가산'을 비롯해 다산선생이 시름을 달래던 장소에 세워진 '천일각' 이란 정자가 옛 모습 그대로 보존돼 있다.

또 다산초당에서 800m 떨어진 곳엔 다산의 생애와 업적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다산유물전시관이 자리잡고 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